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6월 28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시 112:1-10, 신 6:16-19

제목 : 애국하는 신앙 · 영화로운 나라(4): 정직한 삶
“아름다운 땅에서 강성해지리라”

말씀 :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으니라” (신6:18-19)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월의 목회 주제는 애국하는 신앙. 영화로운 나라입니다. 주제말씀은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입니다. 이 주제와 주제 말씀에는 이 땅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나라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그 결과 그 나라를 영화롭게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국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전 주까지 애국하는 신앙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고 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정책을 세우고 법안을 만들 때 하나님의 심부름 군으로 책무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정세가 악화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도록 특히 코로나 19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인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조금은 감도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사퇴가 어서 종식되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6월의 주제 설교 마지막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길이 애국하는 일입니다.

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애국하는 길일까요?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렘9:24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여기서 공의는 정직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 26:7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정직하신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동남아 후진국들을 한번 가세요. 거짓이 판을 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때 정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7:29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신13:18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하게 살면 강한 국가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구약의 개념이기에 구약에서 정직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3개있습니다. <미쉬파트> <야샤르> <아멘>입니다.

<미쉬파트>는 <공의>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핵심은 이웃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샤르>는 <곧은> <정직한>의 의미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에서는 왕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나라를 강하게 한 왕들에 대하여서는 한결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왕상 15:5입니다.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또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하18:3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마무리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하신 그 대표기도에 나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아멘>은 <신실하다. 변함없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에 그들의 모습에서도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sincere>로 표현합니다. 영어단어의 어원은 거의 라틴말에서 왔습니다. <sincere>의 라틴어 어원은 <sine(without)+cera(wax)>입니다. 어떻게 ‘왁스가 없다’라는 말에서 ‘정직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유래가 이러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도자기가 무척 귀한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질이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늬, 색깔, 모양 등 모든 것이 좋아야 했지만 무엇보다 금이 없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도자기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도자기에 간 금을 감쪽같이 숨기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흰 진주색과 같은 왁스를 살짝 바르면 도자기의 금이 감쪽같이 감춰졌다고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직하지 않은 상인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속여서 금 이간 도자기를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왁스가 없다>는 말은 <이 도자기는 절대로 금이 간 곳이 없는 진품 도자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정직>을 뜻하는 <sincere>란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라틴어의 유래가 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sincere>의 헬라어 어근을 살펴보면 <sun tested>입니다. <햇빛으로 테스트 해보다. 햇빛에 비춰보다.>라는 뜻입니다. 왁스로 가린 도자기의 금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감쪽같이 안보이지만 도자기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면 하얀 진주색 왁스가 보입니다. 햇빛에 비춰보았을 때 왁스가 없으면 그것은 진품이다 즉 그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을 정리하면 도자기를 햇빛에 비추어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정직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속이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직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정직한 삶을 어떻게 실천 할 수가 있을 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변함없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사람사이에서는 장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의 임금

을 주는 일에 있어서 정의롭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잠16:11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저울은 여호와와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 물건을 무게를 잴 때 돌로 무게를 측량했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는 그 돌의 무게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돌도 하나님이 다 지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잠20:10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측량 도구인 되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리터가 들어가는 되인데 되의 밑을 두껍게 하여서 0.9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아내와 함께 길을 가다가 길가에 용달차 같은 것을 세우고 딸기를 파는 부부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사각형의 스티로폼 박스에 담긴 딸기가 너무 잘 익었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여니 여자분이 광주리에 담긴 맛보기 딸기를 가져오면서 맛을 보라고 합니다. 아내가 한두 개 정도 맛을 보더니만 두 박스 살까 한 박스 살까 하다가 한 박스를 샀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아니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지는 않는 데 하여튼 그날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박스를 열어보니 박스 안에 딸기가 위에 것은 참 좋은데 밑에 있는 것은 다 실하고 물렸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배신감에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장사해서 과연 복을 받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장사에 진실한 게 정직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출23:1-3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지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론 몰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프레임을 씌우는 일에 동참하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어생활에 정직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주 못된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기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 두세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하라고 거짓을 증언했습니다. 두세명이 합작해서 말하니 선량한 백성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갈취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을 정직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 16:16-18입니다. “1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재판에 정직과 공의가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정직과 정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이 영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특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강한 나라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신6:18-19은 말합니다. “18-19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 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아주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방황 때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정말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즉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간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자 세탁소를 하면서 수입의 일부분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탁소를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전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맡겨진 세탁물의 아주머니에서 2천7백 달러가 발견되자 그는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는군."

며칠이 지난 후 그 세탁물의 주인이 오자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요?"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후에 세탁물 주인은 이 사람을 다시 찾아와 세탁 공장의 운영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세탁물 주인이 항공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정직한 자이기에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700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주가 되었습니다. 잠14:11에서 말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오늘 본문 시112:2-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하게 사는 자들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강성함>이란 <힘이 있는 (very strong)> 또는 <권세있는 (mighty)>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후손들이 조상들이 사는 땅에서 힘 있게 권세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기치면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재물(Wealth and riches)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말합니다.

또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선다고 했습니다. 역시 정직하게 사는 자의 후손들을 그 땅에서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영화롭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되려면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부조리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거짓된 모습을 다음세대의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공의와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의 의대생들이 지난 3-4월에 치른 의과대학 단원 시험에서 5-8명이 모여서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정답을 공유했습니다. 부정행

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의 제보로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109명중 91명이 가담했습니다. 거의 90%입니다. 온라인 시험이라 부정이 있을 지도 머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고 한 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40-50명이 집단 적으로 가담한 일에 끔찍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가장 직업윤리의식이 강해야 할 의대생들이 이렇게 된 데 대하여 심각한 사태라고 했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딴 앵두를 팔려고 한 아주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래, 내가 좀 살게" 하면서 앵두가 들어 있는 통을 집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앵두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이 그 집 뜰의 새장 안에 들어있는 새를 보고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애야,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보다 앵두를 더 많이 가져가지 않나 지켜봐야 하잖니? 내가 너를 속이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자 그 아이는 밖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전 걱정 안 해요. 더 가져가 보았자 제일 나쁜 것을 가져가실 걸요" "제일 나쁜 것을 가져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저야 앵두 몇 개 더 잃겠지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도둑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참 아이의 마음이 어른 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거짓을 행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거짓의 돈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저는 마귀다. 돈궤를 맡고 그 돈을 훔쳐간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직한 수입으로 돈을 버는 자들은 영적으로 마귀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많은 나라를,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가정, 사회, 일터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정직한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6:18-19은 말합니다. "18-19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일이 애국하는 길이요 민족이 영화롭게 되는 길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정직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면서 강성해지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는 나라에서 살수가 있기를 바랍니다.